

곽동연 “남배우 복·케미의 왕 되고파...롤모델은 조진웅”

tvN 드라마 ‘빈센조’ 중영 인터뷰

바벨그룹 회장 ‘장한서’...반전 역할

“송중기, 늘 배려...든든하게 촬영”

“제 연기 인생에 전환점이 다시 돈 것 같은, 알게 모르게 많은 걸 배우고 느낀 작품이죠.”

tvN 드라마 ‘빈센조’에서 ‘장한서’로 분해 송중기와 대척점에 있다가 짜릿한 공조를 선보인 배우 곽동연은 “뛰어난 선배님들과 연기 하면서 교과서를 보는 느낌이었다. 선배님들을 보며 배웠고, 이번 작품을 통해 성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최근 화상으로 만난 곽동연은 “7~8개월간 촬영했는데,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작품이었다”고 중영 소감을 밝혔다.

‘빈센조’는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에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가 베테랑 독종 변호사와 함께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리는 이야기다. 송중기가 이탈리아 출신의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로, 전여빈이 독종 변호사 ‘홍차영’으로 출연했다.

극 중 곽동연은 바벨그룹 회장 ‘장한서’ 역을 맡았다. ‘장한서’는 풀기 총만한 총수로 어린 나이에 부와 권력을 손에 쥐어 폭력적이고 승부에 집착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실제 바벨그룹의 실세는 형 ‘장준우’(옥택연)였고, ‘장한서’는 극 후반에 자신을 무시하고 억압해오던 형에게 맞서고 빈센조와 공조한다.

“장한서, 시작과 끝 다른 인물...부담감보다는 설렘 컸죠”

곽동연은 ‘빈센조’ 대본을 분방을 기다리는 시청자의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웃었다. 예측할 수 없는 내용에 설레는 마음으로 대본을 기다렸다는 것.

그는 “장한서’는 시작과 끝이 다른 인물이고, 성장하는 캐릭터다. 대본에 한서의 서사가 잘 드러나 있어 연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

었다. 시청자분들이 제 연기 의도대로 한서에 게 연민을 갖고 공감해주기를 바랐다”며 “처음엔 최악의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귀엽다고 얘기해주실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인물의 성장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진심하게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일생을 억압 속에 살았던 답답함이 있었고, 준우에 대한 공포심이 컸죠. 이후 빈센조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희망을 느끼는 모습에 신경 썼죠. 후반부에는 빈센조와 완전히 감정적 교류를 하고 성장해 인간다운 모습이 비치기를 바랐어요.”

‘장한서’ 캐릭터를 맡아 부담감보다는 설렘이 컸다고 했다. 극 중 아이스하키를 하는 모습도 작가와 미팅 당시 곽동연이 실제 할 줄 안다고 언급한 게 신으로 이어졌다. 그는 “많은 모습을 꺼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작품을 할 때마다 연기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도전을 많이 해보려 한다.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특히 ‘장한서’는 극 중 심경 변화에 따라 표정이 시시각각 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서는 심경 변화에 따라 표정으로 다 티가 난다. 감추려 하지 않는다”며 “중후반부에는 한서가 준우에게 아부를 말로만 한다. 팬들이 연기 못하는 연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발전기처럼 보일까 많이 신경 썼다”고 웃었다.

형 ‘장준우’를 두려워했던 ‘장한서’가 그에게 한 방을 날리면서 시청자들도 쾌감을 느꼈다. “저도 굉장한 쾌감을 느꼈어요. 뒤에서가 아니라 면전에서 형에게 반기를 드는 데 대본을 보면서 짜릿했죠. 그동안 무시당했던 행동을 그 신에 다 넣고 싶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빈센조와 막걸리를 마시는 신을 꼽았다. “빈센조가 왜 나

를 돕냐고 묻자 한서가 그냥 ‘형 같아서’라고 답해요. 한서는 형이 있지만 진짜 바라던 모습의 형이 빈센조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그만 애정에도 기뻐하고 진심으로 건네는 응고에 자극을 받았죠.”

‘넝쿨당’으로 2012년 데뷔...롤모델은 배우 조진웅

송중기, 옥택연과의 호흡도 언급했다. “택연이 형은 밝고 유쾌한 에너지가 있어요. 늘 편하게 대해주려 했죠. 다만 극 중 관계가 더 돈보이게끔 신경 쓰느라, 너무 많이 친해지는 건 경계했어요. 송중기 선배님은 중후반부부터 같이 촬영했는데 하고 싶은 연기를 다 하리라며 힘을 북돋아 주셨죠. 내공이 어마어마하시니 항상 배려해주셨고, 든든하게 촬영했죠. 좋은 케미가 완성된 것 같아요.”

상대 남배우 복이 많은 걸로 유명하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웃었다. 그는 “그래서인지 다음 작품도 군인 작품이다. 제가 유독 형들을 많이 만나는 게 사실이지만 어떤 배우와 붙어도 잘 어울리는 케미의 왕, 이런 호칭을 노리고 있다. 기회가 있으면 말랑말랑하고 풋풋한 멜로도 한 번쯤 하고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지난 2012년 KBS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방장군’ 역으로 데뷔한 곽동연은 이후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다시 만난 세계’, ‘내 아이는 강남미인’, ‘두 번은 없다’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출연해 호평을 받았다.

“데뷔할 때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지금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하고 싶은 이유, 뭘 해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임과 동시에 잘하고 싶은 일이지. 큰 축복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롤모델은 배우 조진웅을 꼽았다. 그는 “선배님이 배우로서 갖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 등 원래도 존경했지만 같이 작품하면서 더 크게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오스카에서 여우조연상을 탄 배우 윤여정에게는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곽동연은 데뷔작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윤여정과 함



께 출연했다. 그는 “윤여정 선생님 개인의 스타일이지 한국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말에 동감한다. 윤여정 선생님이 수십 년간 걸어온 길, 쌓여온 내공과 지혜로 받아 마땅한 상 하나를 받으신 것 같아 너무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곽동연은 차기작으로 영화 ‘6/45(육사오)’에 출연한다. 그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코믹한 영화다. 촬영을 시작했는데 현장에 유쾌한 분

들이 많이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품을 끝내면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막상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근질거려요. 빨리 현장에 나가고 싶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좋은 연기를 하고 싶어요. 시청자들에게 질리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죠. 연기를 좋아하고, 작품으로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젊은 배우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김원희·김희철,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 MC

오는 28일 첫방송

김원희와 김희철이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 MC로 의기투합한다.

6일 MBN에 따르면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가 오는 28일 오후 11시에 첫 방송된다.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는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을 재발견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반한 외국인 아내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또 ‘한국에 살면서 경험하는 일상’을 주제로 열띤 토크를 나누며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정이다.

MC로는 김원희와 김희철이 나선다. 같은 나라에 살지만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살아 가고 있는 출연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특히 ‘MC계 강자’ 김원희와 ‘민고 보는 예술돌’ 김희철의 만남으로 ‘희희남매’가 보여줄 케미스트리에 기대가 모아진다.

그뿐만 아니라 김원희와 김희철은 셀럽 패널 및 출연진들과 함께 관촬 VCR을 토대로 폭풍 입담과 다채로운 리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차은우, 다음달 글로벌 온라인팬미팅...‘인투 유’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단독 온라인 팬미팅을 개최한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오는 6월4일부터 5일까지 차은우의 글로벌 온라인 팬미팅 ‘2021 저스트 원 테닛-인투 유’가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첫날에는 글로벌 팬미팅이, 두번째 날에는 중화권 팬미팅이 진행된다.

글로벌 팬미팅은 국내, 미주 및 유럽,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는 ‘팬아TV’, 일본에서는 ‘쥬스티켓’,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는 ‘타이티켓메이저’를 통해 티켓을 오픈한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도 가능하다.

중화권 팬미팅은 다음 주 중 플랫폼과 티켓이 오픈될 예정이다.

안성기 ‘5·18 소재 부담 없었다...진정성에 끌려’

‘화려한 휴가’ 이어 다시 5월 광주 영화로

‘아들의 이름으로’ 통해 액션장면도 소화

배우 안성기가 5월 광주를 기억하는 ‘아들의 이름으로’로 스크린으로 돌아왔다. 2007년 ‘화려한 휴가’에 이어 다시 한번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로 관객과 만나는 그는 진정성 있는 내용에 끌렸으며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의연한 모습이었다.

6일 화상으로 만난 안성기는 “시나리오를 읽지마자 하기로 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5·18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주제든 작품이 갖는 진정성, 완성도가 있으면 당연히 출연한다”며 “이번 작품 역시 시나리오의 내용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부연했다.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오재근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성 없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과거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과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반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안성기가 5월의 광주를 잊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오다 호의호식하며 사는 이들에게 복수를 준비하는 오재근 역을 맡았다.

그는 “오재근이라는 인물을 통해 광주 이야기를 하는 점이 흥미로웠고 나중에는 복수가 지하는 것이 감렬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오재근이 복수를 하는데 감정이 쌓여가지 않으면 설득력과 감동이 없을 것 같아서

한 장면씩 짝어 나가면서 그런 감정들을 쌓아가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벨트를 이용해 학교폭력 가해자를 단숨에 제압하는 등 액션 장면도 소화했다.

안성기는 “평소에 체력 관리를 잘해서 힘들지는 않았다”며 “액션이 짧지만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임팩트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나름 했는데 괜찮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웃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독백 신을 꼽았다.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도 가장 가슴을 울렸던 장면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절제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작품의 진정성에 공감해 노גע런티는 물론 투자자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제작비가 많지 않은 영화다. 이정국 감독이 출연을 제안했을 때 노גע런티를 알고 있었다”며 “꺼리지 않고 선뜻 받아들였다. 다같이 힘을 모아서 만든 영화다”고 돌아봤다.

영화는 지난해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다. 코로나19로 연기 끝에 12월 개봉을 확정했다.

영화에는 배우가 아닌 실제 광주 시민들도 다수 등장해 연기를 펼쳤다. 안성기는 “지금껏 영화 하면서 일반인들과 이렇게 많이 한 건 처음이다. 영화 속 병원, 식당 등 장소도 제공해주셔서 촬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워



했다. 41년이 지난 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담은 의미도 짙었다. 그는 “광주에서 첫 시사회를 했는데 많은 분이 우셨다. 이게 끝난 일이 아니구나, 슬픔이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아름, 고통은 아직 이어져 오고 있고 어떻게든 짚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몫은 기성세대뿐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980년 그 당시에는 나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지냈다. 한참 후 진상을 알게 됐다”며 “그것에 대한 미안함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싶다. 80년대에 있었던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것을 상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빈센조’ 송중기, 헤이즈 신곡 뮤직비디오 출연한다

배우 송중기가 가수 헤이즈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참여한다.

헤이즈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송중기가 헤이즈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게 맞다”라고 6일 밝혔다.

송중기는 지난 2일 종영한 tvN 드라마 ‘빈센조’에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 역을 맡아 활약했다.

광고는 물론 다채로운 콘텐츠들을 통해 한류 대세 배우 면모를 뽐내고 있다.

한편, 헤이즈는 지난해 9월 피네이션에 합류했다. 이번 신곡은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 합류 이후 첫 신곡이다. ‘웜 감자’ 헤이즈가 어떤 콘셉트로 컴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